

##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의생활 영역 가정과수업의 적용

오경선\* · 이수희\*\*†

\*경기상갈중학교 교사 · \*\*서울대학교 강사

---

### Application of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lan in the Clothing For Teenager's Empowerment

Oh, Kyungseon\* · Lee, Soo-Hee\*\*†

\*Teacher, Gyeonggi Sanggal Middle School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clothing teaching-learning plan from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developed to improve teenager's empowerment, and to examine its effects. A total of 12 plans of 5 modules(Module A to E) developed from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were implemented for four weeks. Second-year students (N 42) of K Middle School located in Y-si, Gyeonggi-do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the study, and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using *t*-tests. For the quality analysis, The student interview data, action reports and etc. were collected, and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mpowerment model as the analysis framework. The findings of study are follows.

First, two hours each for modules A to D, and four hours for module E were assigned, because module E included an action project. In the action projects by for groups, students were expected to take the lead in conducting the activities such as developing promotional posters, posting opinions online, promoting videos, informing how to make recyclables, and donating to the community.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implementation vs post-implementation empowerment score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social-political empowerment ( $t=-2.06, p<0.05$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tudent interviews and students project's reports, students were found to become aware of empowerment through the instruction. On the intrapersonal level, positive self-awareness and self-efficacy, and on the interpersonal level, smooth communic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were confirm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regular a home economics instruction class from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have made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act on teenagers' improvement empowerment, providing opportunities to find their roles in the socety, cooperate with others, and behave responsibly as members of society.

Key words: 비판과학 관점 교수·학습 과정안(critical science perspective based teaching-learning plan), 의생활(the clothing), 임파워먼트(empowerment), 청소년(teenagers)

---

† 교신저자: Lee, Soo-Hee, San 56-1 Shillim-dong, Gwanak-gu, Seoul 08826, Republic of Korea

E-mail: kywonk@unitel.co.kr

본 논문은 2018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가?’, ‘미래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놓고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18). OECD가 제시한 미래역량은 행위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정책을 실행하면서 미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MOE], 2015a). 가정과교육에서도 지속적인 성찰과 숙고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역량으로 현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대인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 자립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창조해가는 것이 궁극적인 가정교과의 목표이다(MOE, 2015b).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내재된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1940년대 사회·정치학 분야에서 의식변화를 피하며 시민 운동, 흑인 투표권 저항운동, 여성 해방운동 등에 사용된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권한을 주다(Oxford Language Dictionaries Online)’로 사용된다. 현재는 권한위임, 역량 강화 등의 용어로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Hyeon, 2011).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Oh, Ha, & Lee, 2019). 이는 앞서 OECD가 말한 학생의 행위 주체성을 강조하며 변혁적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위한 기초가 되어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꼽을 수 있다.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수적 요소는 집단 개발과 집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면서 비판적 사고가 발달되어 임파워먼트가 형성된다고 보았다(Florin & Wandersman, 1990). 비판적 사고는 공감적 경청, 동기화를 일으켜 긍정적 행동을 하게 한다. 이것이 자신에게 변화를 일으켜 참여를 통한 상호통합이 이루어진다. 이 때 교사의 역할은 대화, 정보교환, 그리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해야 한다(Wallerstein, 1992).

가정과교육의 비판과학 관점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지속적인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압력이나 잘못된 사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인과 가족, 사회가 상호의존적 관계를 파악하여 신중한 행동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실천적 추론, 협동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생활에 합리적 행동과 반성적 행동을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업의 전제조건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분위기와 의사소통, 개인과 가족은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비로소 개인과 가족은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임파워먼트가 향상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표적인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사용 지도서로 개발된 미국 위스콘신 주의 “A Teacher’s guide: Family, Food and Society”(Staaland & Storm, 1996)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임파워먼트를 위한 프로그램 요소와 비판과학 관점 가정과교육과정의 핵심적인 개념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협동적 활동을 전제로 하며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성찰, 참여활동을 공통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의생활 교육내용은 여전히 바느질하는 방법, 세탁하는 방법 등의 기술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의생활과 관련한 딜레마 상황을 가치판단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임파워먼트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Oh, Lee, & Lee, 2011; Yoo & Lee, 2010). 교육내용을 비판과학 관점 가정과교육과정에 기초하여 “What should we do”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윤리적 의복 소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등과 같은 관심사를 해결하도록 구성하고 수업에서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천적 추론으로 구성하고,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역량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개발된 비판과학 관점의 의생활 교수·학습과정안(Oh, Ha, & Lee, 2019)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의생활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가치목표를 기준으로 해결할 힘을 기르고, 더 나아가 사회 환경을 변화시켜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가정과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의생활 영역의 비판과학 관점 교수·학습과정안 적용을 통해 학습자의 임파워먼트 향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의생활 영역의 비판과학 관점 교수·학습과정안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연구문제 2] 의생활 영역의 비판과학 관점 교수·학습과정안 적용의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교수·학습과정안 적용의 양적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교수·학습과정안 적용의 질적 효과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경험과 자원이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의사결정력이 제한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인간관계와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역할들로부터 해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힘과 권한, 의사결정권을 제한적으로 부여받아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정치·사회적인 자신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청소년이 자신이 주체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as cited in Saleebey, 1992; Kim, 2002).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에서 임파워먼트와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의 연관성(Ungar & Teram, 2000), 친구 관계와 학교적응에 끼치는 영향(Yu, 2011)을 확인했으며, 청소년 자치 활동과의 관계(Kim, Jung, & Choi, 2010),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관성(Lee & Kim, 2013) 등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들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영역은 여러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Ahn, 1985; Bolton & Brookings, 1998; Parsons, 1999; Zimmerman & Zahniser, 1991) <Table 1>과 같이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정치·사회적인 차원으로 분류하였다(Kim, 2002). 세 가지 차원 중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자아의식, 자기수용, 자존감 등이 포함된다.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는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나

Table 1. Three sub-categories of empowerment

Intrapersonal empowerment	Interpersonal empowerment	Sociopolitical empowe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lf-awareness</li> <li>• Self-acceptance</li> <li>• Self-assurance</li> <li>• Self-esteem</li> <li>• Rights awareness</li> <li>• Self-efficac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sertiveness</li> <li>• Delimitation</li> <li>• Favor</li> <li>• Asking for help</li> <li>• Problem solving</li> <li>• Resource access</li> <li>• Critical think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li> <li>• Contributing to returning to society by helping others</li> <li>• Participation in election, and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li> <li>• Exercising control about own areas of Life</li> </ul>

Source: The author arranged data based on Parsons(1999; Lee et al., Trans. 2002, p. 401) and Gutierrez, Parsons, & Cox(1998; Kim et al., Trans. 2006, p. 20). Suh, Soo, & Sohn(2015) translated in English.

타나는 것으로, 자기주장, 한계설정, 베풀기, 문제해결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에 가입, 타인원조를 통한 사회 환원, 기여, 선거 참여 및 대중에 의견 표명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 2. 비판과학 관점 가정교육과 임파워먼트

Baldwin(1990)은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정교육은 개인과 가족을 정치적·도덕적 힘을 기초로 임파워시켜 가족이 사적 영역뿐 아니라 대중과 정치 영역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 수준 가정교육과정(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2008)에서도 다양한 세계와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개인과 가족이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가정학의 비전이라 하였다. 즉, 가정교육의 목표는 가족이 임파워되도록 교육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정과수업에서 교육해야 하는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다(Baldwin, 1990). 개인과 가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첫째로 사회적 압력에 대한 비판적 사고, 둘째로 가족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대화로 자주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하며, 셋째는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의 일반적 욕구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료들을 협력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비판과학 관점 가정교육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가족의 세 행동체계, 지속적인 관심사, 실천적 추론, 광의의 개념, 가족의 일을 알아가며 배울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세 행동체계는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반성적 행동으로, 기술적 행동은 기술적인 정보, 방법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행동이다. 의사소통적 행동은 행동을 조정하고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성적 행동은 일상의 신념이나 생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가족은 행동을 할 때, 세 행동체계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세 행동체계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이를 이용하여 가족은 지속적인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판단을 사용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Staaland & Storm, 1996; Thorsbakken, Schield, 1999).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에서도 지속적인 성찰과 숙고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역량으로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MOE, 2015b, p. 3)

제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역량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임파워먼트를 형성하는 것이 교과 목표이다(MOE, 2015b).

가정교육에서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지속적인 관심사를 다루고, 관심사에 내재된 사회적 압력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 파악하는, 그 결과로 대안적 행동을 선택하고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행동을 추구하는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과정이 필요하다(Baldwin, 1990).

## 3. 의생활 영역에서의 비판과학 관점 가정교육 적용

2007 개정 가정교육과정부터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과정이 내재되면서 ‘실천’ 교과의 의미가 ‘생활 개선’에서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반성적 사고가 요구되는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Brown, 1979; Laster, 2008; Yoo & Lee, 2010). 최근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의 교육목표도 “가정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행동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을 기르는 것(MOE, 2015b, p. 5)”으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실천적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법, 문제 중심 수업 등의 교수학습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의생활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

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더 나아가 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목표와 교수학습방법을 실현하기 힘든 교육내용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생활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을 보면, ‘의복 재료의 특성’, ‘의복의 형태와 종류’, ‘세탁과 보관’ 등 여전히 의생활과 관련한 지식과 학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적 관점인 경험과학 관점의 학습 내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의 원인으로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 간의 내적일관성 불일치로 접근하였다(Oh, Ha, & Lee, 2017). 즉 교육과정 구성요소인 가족, 사회, 교육내용, 교수방법이 같은 철학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여야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데,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되어 있는 2007 개정, 2009 개정 그리고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만은 가족, 사회, 교수방법과 다르게 경험과학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비판과학 관점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교과내용 뿐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다루고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공동의 선에서 가치판단 해야 하는 윤리적 접근과 개인 및 가족, 사회에 끼치는 영향까지 예측하는 내용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정과교육의 의생활 영역 목표인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을 포함하는 임파워먼트를 형성할 수 있다(Brown, 1979; Montgomery, 2008; Oh et al., 2017; Yoo, 2006).

본 연구에서는 의생활 교육내용을 비판과학 관점의 교수·학습과정안 적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의생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가 재직하였던 K중학교의 2학년 학생(양적연구- 총 42명, 남 26명, 여 16명, 질적연구- 총 46명, 남 27명, 여 19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중학교 2학

년 학생들은 연구자가 연구 시기 전년도에 담임과 교과를 담당하였기에,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수업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해당년도에 연구를 위해 휴직 중이었으나,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얻어 정규 가정교과 시간에 개발된 가정과수업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 2. 측정도구

임파워먼트는 각 사람이 처한 문화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적 및 질적 방법을 모두 필요로 한다(Zimmerman, 2000). 따라서 개발된 가정과수업을 적용한 후 그 효과로 임파워먼트가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양적과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진행하였다.

##### 가. 양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를 위해 Kim(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임파워먼트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평가척도는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정치·사회적 차원으로 임파워먼트를 구분하였다. 세부적인 내용 구성은 Bolton과 Brookings(199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구성하였고, Zimmerman과 Zahniser(1991)의 척도를 사용하여 정치·사회적인 임파워먼트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형성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29문항,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는 27문항,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는 13문항으로 총 69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임파워먼트 측정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 나. 질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를 위해 학생 면담자료, 수업일기, 학습지, 실행 보고서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able 2>의 분석틀을 준거로 하여 수업 전과 후의 임파워먼트 향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분석틀은 청소년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가정과교육 내용요소를 분석한 Suh, Lee와 Sohn(2015)의 분석준거를 이용

하였다. 이는 Parsons(1999)의 임파워먼트 결과 범주를 기준으로 임파워먼트 개념(Baldwin, 1990; Kim, 2002)과 임파워먼트 척도문항 분석(Peterson, et al., 2006)을 통해 각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표를 사용한 것이다.

### 3. 연구절차

개발된 의생활 영역의 비관과학 관점 가정과수업을 2017년 10월 후반에서 11월 중순까지 총 4주 동안 12차시 수업을 적용하였고, 학생들의 임파워먼트가 향상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수업 적용 전에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수업 후에 다시 사후 검사를 진행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실험설계로 진행하였다. 과정 중에 학생면담 실시하였고 학생 수업일기와 학습지,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4. 자료분석

양적분석을 위해 자료의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win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통계적 자료처리를 통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측정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결과 사전-사후 임파워먼트의 전체 하위 영역에서 모두 Cronbach- $\alpha$  값이 0.7이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교수·학습과정안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참여 인원 중 2명의 학생은 첫 시간에 결석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2명의 검사지는 불량한 답변으로 제외시켜 총 42명(남 26명, 여16명) 학생에 대한 사전 및 사후의 임파워먼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분석을 위해 학생수업일기, 학습지, 실행 보고서 등의 수집된 문헌자료들을 <Table 2>의 임파워먼트 분석틀을 이용하여 각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후에 각 차원마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여 임파워먼트 요소를 확인하였다.

Table 2. Anaysis framework of empowerment

Category	Component	Contents
Intrapersonal empowe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lf-awareness</li> <li>• Self-acceptance</li> <li>• Self-assurance</li> <li>• Self-esteem</li> <li>• Rights awareness</li> <li>• Self-efficacy</li> </ul>	Understanding of yourself, Positive self-awareness and belief, Establishment of individual's strengths, Faith in your own abilities, Working toward a goal, Willingness to challenge, Improving your independence, Emotional stability, Stress reduction, Consciousness of r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sertiveness</li> <li>• Delimitation</li> <li>• Favor</li> <li>• Asking for help</li> <li>• Problem solving</li> <li>• Resource access</li> <li>• Critical thinking</li> </ul>	Interest in the neighborhood, Sociality enhancement, Understanding in others' place and accepting opinions, Expressing own opinions or feelings effectively, Exchanging help with others, Good communication,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Ability to solve conflicts, Problem solving strategy, Understanding and using your resources for goal attainment
Sociopolitical empowe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li> <li>• Contributing to returning to Society by helping others</li> <li>• Participation in election, and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li> <li>• Exercising control about own areas of life</li> </ul>	Developing a moral orientation toward social issues and taking collective action, Recognizing problems of local society and showing leadership, Recognizing social contradiction suppressing you and introspecting rationally, Recognizing a community-wide goal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having a responsibility, Acting to change by exercising control about social environment

Source: Suh et al.(2015, p. 105)

## IV. 결과

### 1. 의생활 영역 비판과학 관점 가정과수업 적용

#### 가. 실천적 추론 단계별 수업 실시

본 연구에 적용된 교수·학습 과정안은 Staal and Storm (1996)의 비판 과학 관점의 교사 지도서 ‘A Teacher’s guide: Family, Food and Society’의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개발된 의생활 프로그램이다. 각 모듈을 구성한 개념적 틀은 ‘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이 의생활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하는가?’ 라는 지속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하위 관심사, 광의의 개념, 강조하는 실천적 추론 단계, 관련 하위 개념, 다루어지는 지적·사회적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된 총 5개의 모듈(모듈 A-E)의 12차시 수업이 진행되었다. 모듈 A-D는 각각 2차시, 모듈 E는 4차시, 즉 3차시는 준비와 실행, 1차시는 실행 후 활동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듈 A는 학생들이 의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사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으며, 모듈 B는 의복의 태도와 규범이 형성되는 맥락을 고려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모듈 C에서는 의복의 소비 패턴의 대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듈 D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윤리적인 의복 공급에 대한 가치 있는 목적을 결정하고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듈 E에서 학생들은 의복과 관련한 관심사를 사회 참여 행동 프로젝트로 실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천적 추론 단계 전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적용하였다.

비판과학 관점 가정과수업은 협력적 학습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둠 협동학습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둠구성은 모듈이 시작될 때마다 각 모듈에서 다루는 광의의 개념이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의 카드를 나누어 주어 같은 종류의 카드를 받은 학생들이 하나의 모둠이 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 친구들의 대답에 비난을 하지 않고 칭찬을 독려하는 모둠활동 규칙을 만들고, 모둠에서 칭찬이 역할을 정하도록 하여 모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고활동으로는 실천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고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하였다.

#### 나. 실행 프로젝트 활동

모둠별 사회 참여 실행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은 의생활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추론 단계를 적용한 후 행동까지 이르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우선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교사의 확인을 받아 수정·보완한 뒤에 모둠별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1반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급식실에서, 2반 학생들은 아침등교시간을 이용하여 등굣길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내용물을 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캠페인 활동으로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퀴즈 등을 만들어 참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였고, 슬로 패션 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급식실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복 재활용 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제작과정을 안내하였다. 또한 헌 옷을 수집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활동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실행하였다.

### 2. 의생활 영역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수업 효과

#### 가. 양적 자료 분석: 사전-사후 차이 검증 결과

개발된 의생활 영역의 비판과학 관점 가정과수업을 통한 중학생의 입파워먼트 향상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았다. 즉 입파워먼트의 하위요인에 관하여 개인내적 입파워먼트는 3.26점에서 3.38점으로 0.12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t=1.35, p<0.2$ ). 그리고 대인관계적 입파워먼트는 3.73점에서 3.88점으로 0.15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t=1.52, p<0.2$ ), 정치·사회적 입파워먼트는 3.12점에서 3.34점으로 0.22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2.06, p<0.05$ ). 전체 입파워먼트는 사전 3.41점에서 사후 3.57점으로 0.16점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t=1.99, p<0.1$ ). 모든 차원에서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정치·사회적 입파워먼트( $t=2.06, p<0.05$ )였다.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재 의생활 관심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Table 3. Action projects








Action projects results		
<p><b>Clothing attitude and norms development</b></p>	 <p>Announce wrong advertisement</p>	
<p><b>Clothing consumption pattern</b></p>	 <p>Slow fashion promotion poster</p>	 <p>Slow fashion UCC screening</p>
	 <p>Recycling donation</p>	
<p><b>Clothing acquisition behavior</b></p>	 <p>Taking the fair trade quiz</p>	 <p>Posting support for fair trade companies on social network system</p>
		 <p>Against child labor exploitation, No animal abuse picket</p>



Table 4. Empowerment pre-post test results

Variables		Number	Mean	SD	t (p)
Intrapersonal	Pre-test	42	3.26	.57	-1.35
	Post-test	42	3.38	.56	(.183)
Interpersonal	Pre-test	42	3.73	.58	-1.52
	Post-test	42	3.88	.59	(.135)
Sociopolitical	Pre-test	42	3.12	.52	-2.06*
	Post-test	42	3.34	.57	(.045)
Total empowerment	Pre-test	42	3.41	.48	-1.99
	Post-test	42	3.57	.49	(.052)

\*p<.05

학습과정을 경험한 후, 사회 참여 실행 프로젝트까지 실천하여 내용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에서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Kwak과 Kim(2013)의 연구 결과에서 4주간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의 경우는 고등학생에 비해 비판적 사고를 통한 깊이 있는 자아 성찰과 대인 관계에 대한 공감까지는 이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간의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일 경우, 비판적 사고를 통한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참여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반별로 성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수치로 향상되지는 않았다. 그 중 2반 남학생의 경우, <Table 5>와 같이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3.19점에서 3.60점으로 0.41 향상하여( $t=2.31, p<0.05$ )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그 영향을 받아 전체 임파워먼트도 유의미하게 증가( $t=2.45, p<0.05$ )하였다. 일반 중·고등학생의 임파워먼트를 연구한 Kwak과 Kim(2013)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다른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반의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 중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의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의생활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에 개인과 가족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본 결과 <Table 6>와 같이,

‘의복 문제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의복생활을 해야 한다’, ‘개인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가족은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 준다’ 등 의생활 관심사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고 비판적으로 행동하는 반성적 행동체제로 인식한 내용이 2반 남학생에게서 가장 많이(46.0%) 나타났다. 또한, 수업 전과 후의 의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록한 내용에서 의생활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와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2반 남학생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의복에 관한 문제점들과 그에 관한 것들, 의복의 관심사에 대해 알고 내가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생략)’, ‘...동물 학대, 노동착취 등의 문제점을 알고 난 후 의복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환경적인 옷을 구매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느꼈다’ 등이 있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2반 남학생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의생활 관심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행동에 더 초점을 두면서 수업에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동시에 다른 차원까지 영향을 끼쳐 전체 임파워먼트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하며, 학생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Table 5. Class and male/female empowerment pre-post test results

Class	M/F	Variables	Statistics			t (p)	
			Number	Mean	SD		
1	M	Intrapersonal	Pre-test	14	3.37	.564	.033
			Post-test	14	3.36	.448	(.974)
		Interpersonal	Pre-test	14	3.63	.700	-.385
			Post-test	14	3.72	.691	(.706)
		Sociopolitical	Pre-test	14	3.08	.510	-.774
			Post-test	14	3.26	.599	(.453)
	Total Empowerment	Pre-test	14	3.42	.523	-.357	
		Post-test	14	3.48	.439	(.727)	
	F	Intrapersonal	Pre-test	7	3.08	.545	-.611
			Post-test	7	3.18	.417	(.564)
		Interpersonal	Pre-test	7	33.26.66	.598	-1.705
			Post-test	7	3.99	.368	(.139)
		Sociopolitical	Pre-test	7	3.42	.607	-.385
			Post-test	7	3.51	.477	(.714)
Total Empowerment	Pre-test	7	3.37	.518	-1.291		
	Post-test	7	3.56	.294	(.244)		
2	M	Intrapersonal	Pre-test	12	3.51	.516	-1.959
			Post-test	12	3.79	.617	(.076)
		Interpersonal	Pre-test	12	3.91	.572	-1.523
			Post-test	12	4.16	.668	(.156)
		Sociopolitical	Pre-test	12	3.19	.458	-2.315*
			Post-test	12	3.60	.530	(.041)
	Total Empowerment	Pre-test	12	3.60	.422	-2.451*	
		Post-test	12	3.90	.586	(.032)	
	F	Intrapersonal	Pre-test	9	2.89	.538	-1.342
			Post-test	9	3.03	.461	(.217)
		Interpersonal	Pre-test	9	3.69	.365	.176
			Post-test	9	3.67	.298	(.865)
		Sociopolitical	Pre-test	9	2.83	.482	-.728
			Post-test	9	2.98	.454	(.487)
Total Empowerment	Pre-test	9	3.19	.396	-.997		
	Post-test	9	3.27	.353	(.348)		

\*p<.05, M: Male, F: Female

나. 질적 자료 분석: 수업을 통해 나타난 학생의 변화

1) 개인내적 차원: 자기 효능감 증가

하나의 모듈을 마칠 때마다 작성한 학생들의 수업일기와

실행 보고서를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효능감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기술내용은 <Table 7>과 같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

Table 6. Results of role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he clothing perceived by students

Class	M/F	N %	Individual and family action system			
			Technical	Interpretative	Critical	Other
1	M	14 %	3 21.4	5 35.7	3 21.4	3 21.4
	F	10 %	1 10.0	5 50.0	1 10.0	3 30.0
2	M	13 %	1 7.7	1 7.7	6 46.1	5 38.5
	F	9 %	4 44.4	1 11.1	3 33.3	1 11.1

M: Male, F: Female

Table 7. Intrapersonal empowerment

Material	What students learned and felt	Analysis
Class diary	뿌듯하다, 의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우리가 평소에 직접 하는 거라 흥미가 있었고 아니까 뿌듯하였다, 여러 가지 알게 되니 좋았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기뻐다, 알게 된 내용이 많아서 뿌듯하다, 오늘 더 새로운 내용과 지식을 알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됐다, 똑똑해진 것 같다,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 뿌듯하다	Self-esteem
	내가 무엇을 샀나? 이런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느낀 점은 내가 행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학교 뿐 아니라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이 생겼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윤00	Self-esteem Self-acceptance
Action report	이번 캠페인으로 완전 재미있었지만 내가 안 할 행동을 느끼게 해줘서 정말 뿌듯하고 내가 몰랐던 내용을 알아서 진짜 너무 좋았다. -이00	Self-acceptance
	...(중략) 처음에도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할 할려고 했지만 참고하니깐 힘든 것을 이겨내서 좋았다. -김00	Self-esteem
	...(중략) 실력도 더 좋아졌다. 수업 후에 힘들었던 것을 극복하여서 좋았다.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이00	Self-esteem

으며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똑똑해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모둠 프로젝트가 힘들어 포기하려 했지만 참고 하니 힘든 것을 이겨내서 좋았다', '수업 후 힘든 것을 이겨내서 좋았다' 등의 자기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판과 학 관점의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서의 교사와 학생 경험을 질적으로 연구한 Han과 Chae(2016)의 연구에서 자신의 생각을 쓰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실천적 추론 가정과수업을 통해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 Chae와 Yoo(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으며,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을 통해 자신감, 자기 조절 효능감 등과 같은 자아효능감이 향상된 Yu와 Lee(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2) 대인관계적 차원: 자기 주장과 베풀기, 문제해결

수업일기와 실행 보고서, 학생 면담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 인관계적 입파워먼트 요소 중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과 원활한 의사소통,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자기 주장 및 베풀기, 문제해결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8>과 같이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모둠활동으로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등의 자기 주장과 '의견을 정리할 때는 다수결로 정해요. 아니며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하는 걸로...'; '서로 각자 패스트 패션에 관한 생각이 다름. 문제가 생기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Table 8. Interpersonal empowerment

Material	What you learned and felt	Analysis
Class diary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알기 쉽고 재미가 있었다.	Assertiveness Favor
	서로 각자 패스트 패션에 관한 생각이 다름. 문제가 생기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함.	Assertiveness Problem solving
Interview data	모듬활동을 하면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아..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김00	Assertiveness
	평소에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않은 00이나 00도 이번 기가시간에는 발표를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00	Assertiveness
Action report	의견을 정해야 할 때는 다수결로 정해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하는 걸로.. -허00	Problem solving
	처음에는 힘들었고 모듬의 협동이 잘 안 되서 안 맞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고 서로를 이해하 니간 협동도 잘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서 더 잘 배운 것 같다.(중략) -김00	Assertiveness Problem solving Favor
	우선 자신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역할에 대해 배려해주고 충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했다. 만들기도 애들의 불편함, 의견을 생각하며 만들고 이를 통해 정말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생겨서 좋다. -조00	Assertiveness Favor Problem solving

함' 등의 문제해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참여 실행 프로젝트에서는 '처음에는 잘 안 맞았지만...서로를 이해하니깐 협동도 잘되고..', '우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역할에 대해 배려해주고 충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했다. 만들기도 애들의 불편함, 의견을 생각하며 만들고.' 등의 배풀기와 자기주장, 문제 해결 요소가 확인되었다. 이는 실천적 추론 가정과수업을 적용하여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Kim, Lee, & Kim, 2004; Yoo & Lee, 2009)와 일치하였다.

3) 정치·사회적 차원: 조직에 참여, 대중에게 의견 표명하기

학생들과의 면담과 사회 참여 실행 프로젝트 활동 후 기록한 보고서에서 학생들은 <Table 9>의 내용과 같이 의생활에 대한 책임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을 취하는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며...', '모듬활동에 참여하며..' 등의 조직에 참여와 '...인식을 조금이나마 심어준 것 같다', '...의복소비패턴이 고쳐지길 바랬다', '..누군가가 옷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심어준다는 생각에 좋았다 등의 대중에게 의견 표명하기와 '기부활동을 하니 뿌듯하네요', '기부하니 더 뿌듯해요' 등의 타인을 돕는 행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웃을 위해 헌혈과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활동(Yu & Chae, 2009), 지역신문에 소비생활문화의 문제점을 기고한 활동(Han & Chae, 2016)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대중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온 것과 일치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판과학 관점으로 개발된 의생활 영역의 교수·학습과정안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의생활 영역의 비판과학 관점 가정과수업은 모듈A에서 모듈D까지 각 2시간씩 진행한 후, 실행 프로젝트 모듈E는 총 4시간을 할애하여 모듈별 사회 참여 실행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모듈별 사회 참여 실행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의생활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추론 단계를 적용한 후 행동까지 이르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1반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급식실에서, 2반 학생들은 등굣길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내용물을 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Table 9. Sociopolitical empowerment

Material	What you learned and felt	Analysis
Interview data	..캠페인 활동하면서 처음에는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았는데...해 보니까 잘 들어주고..호응해줬어요..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김00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
	캠페인 활동을 하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이런 게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기부까지 하니깐 더더 뿌듯했어요. 아름다운 가게가 많아지면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질 것 같아요.-김00	Contributing to returning to society by helping others
Action report	기부활동을 하니 뿌듯하네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이제 여기 알았으니...아름다운 가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손00	Contributing to returning to society by helping others
	판을 꾸미고 사진을 찍을 때 모델 역을 맡아서 친구들과의 우정도 돈독해지고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더 바르게 입어야겠다는 인식을 조금이나마 심어준 것 같다. -김00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
	나는 모둠에서 버리지 않는 옷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지 아이디어를 내어 예코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활동(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창피하였지만 사람들에게 슬로우 패션의 장점을 알리고 패스트 패션을 줄이자는 것을 알리자는 생각을 해 정말 열심히 해 아주 뿌듯함을 느꼈다. -서00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려서 좋았다. 그리고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이00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
	공정무역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 알게 되었고 잘 이해한 다음 그 문제들을 모아서 퀴즈로 만들어서 풀어보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너무 뿌듯하고 이 사회에서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장00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
캠페인 활동을 했을 때 포스터를 들고 흔들며 재활용합시다!라고 외쳤다. 이 활동을 하면서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지금의 의복소비패턴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 활동을 보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의복소비패턴이 고쳐지길 바랐다.-김00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	
노동착취반대와 모피코트 반대 스티커를 나눠주었다. 공정무역과 관련된 옷을 사야 된다고 배웠고 내가 나누어준 스티커가 누군가의 물건의 붙여져서 누군가 그것을 보고 옷의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느꼈다.-이00	An expression of opinions to the masses	

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홍보 포스터, 스티커 제작 후 배부, 의생활 퀴즈,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 홍보 동영상, 재활용품 만드는 방법 알리기, 지역사회 기부 등의 활동을 실행하였다.

둘째, 양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차원에서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정치·사회적 입파워먼트가 사전 평균 3.12에서 사후 평균 3.36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t=2.06, p<0.05$ )였다. 전체 입파워먼트가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향상된 2반 남학생의 경우, 의생활에 대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세 가지 행동체계로 분석한 결과, 의생활 관심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행동에 더 초점을 두면서 수업에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효능감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나의 모듈을 마칠 때마다 작성한 학생들의 수업일기와 실행 보고서 등에서 개인내적 차원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자기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적 차원은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과 원활한 의사소통,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사회적 차원은 조직에 참여와 대중에게 의견 표명하기, 타인을 돕는 것으로 사회 환원에 기여하기 등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의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비판과학 관점의 의생활 가정과수업이 양적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입파워먼트 향상에 영향을 주었고, 질적 분석 결과에서는 개인내적 차원의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적 차원의 자기 주장과 베풀기, 문제해결, 그리고 정치·사회적 차원의 조직에 참여하기, 대중에게 의견 표명하기 등 세 차원 모두 임파워먼트 향상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비판적 관점의 가정과수업은 임파워먼트 향상에 의미 있는 수업임이 드러났다.

둘째, 대부분의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들은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일부 특정 부류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외 프로그램 또는 조회·종례 시간과 같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졌다(Kwak & Kim, 2013; Yu, 2008). 따라서,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가정과수업을 통해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킨 것은 초기 청소년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 찾고,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자기 효능감이 강화되어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교과로서 인식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사회 참여 실행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가정과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임파워먼트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비판적 사고와 실천적 추론을 통한 사회 참여 실행 프로젝트를 가정과교육의 다른 단원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Suh 외(2015)의 연구결과에 따라,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에도 리더십, 시민의식과 같은 내용요소와 부모, 교사, 전문가와 대화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술방식, 그리고 인터뷰, 전문가 초청 등의 활동과제로 구성하여 임파워먼트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된 의생활 영역의 비판과학 관점 가정과수업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 수업시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생활 내용 뿐 아니라 소비자 단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 단원과 연결하여 수업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실천적 추론을 처음 시도할 때는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나, 점점 익숙해지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진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업 후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수업 후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진행 시기가 2017년으로 다소 시기가 지났으나,

개발된 비판과학 관점 의생활 교수·학습지도안은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해 여전히 현장에서 그 필요도가 높고 그 효과에 대한 관심도가 커 현 시점에서도 가정과교육의 발전에 유의미한 연구로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hn, B.-H. (1985). *Validation study for scales relating to interpersonal relations adequ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Baldwin, E. (1990). Family empowerment as a focus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Home Economics Education*, 8(2), 1-12.
- Brown, M. M. (1979).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rules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Wisconsin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evaluation project (No. 33)*.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Bolton, B., & Brookings, J. (1998).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ra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43(2), 131-142.
- Chae, J.-H., & Yoo, T. (2006). The effects of practical reasoning home economics instruc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1), 31-47.
- Florin, P., & Wandersman, A. (1990). An introduction to citizen participation, voluntary organizations, and community development: Insights for empowerment through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41-54.
- Gutierrez, L. M., Parsons, R. J., & Cox, E. O. (1998).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Reprinted from 사회복지실천과 역량강화, p. 20, by Kim et al. 2006. Seoul: Nanum house)
- Han, J., & Chae, J.-H. (2016). Experiences of the teachers in the practical problem-based home economics class. *Journal of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4), 351-363.

- doi:10.6115/fer.2016.027
- Hyeon., C. S. (2011).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and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Kwak, M. J., & Kim, H. M. (2013). A study on effectiveness analysis of youth empowerment progra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 129-156.
- Kim, H. S. (2002). Development of a measure of youth empower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4, 91-113.
- Kim, H.-S., Lee, H.-S., & Kim, Y.-N. (2004). The development of teaching plans for web-based practical problem-solving lesson - focused on 'food nutrition and diet of adolescents' unit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of middle school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4), 43-56.
- Kim, Y. N., Jung, G. H., & Choi, Y. J. (2010). The effect of youth self-governing activity on empower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3), 1-23.
- Laster, J. F. (2008). Nurturing critical literacy through practic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the Japan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50(4), 261-271.
- Lee, S. Y., & Kim, H. M. (2013).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 on empowerment of juvenile delinqu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4, 189-211.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General curriculu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5b). *The practical arts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Sejong: Author.
- Montgomery, B. (2008). Curriculum development: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26(National Teacher Standards 3), 1-16.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2008).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National Standards 3.0*. Retrieved from [http://www.natefacs.org/Pages/Standards\\_eBook/Standards\\_eBook.pdf](http://www.natefacs.org/Pages/Standards_eBook/Standards_eBook.pdf)
- Oh, K., Ha, J., & Lee, S.-H. (2017). Review and alternatives to the internal consistency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mponents: Focused on the clothing & textiles a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3), 49-75. doi:10.19031/jkheea.2017.09.29.3.49
- Oh, K., Ha, J., & Lee, S.-H. (2019).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lan in the clothing and textiles area for teenager's empowerment improving (I).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3), 155-177. doi:10.19031/jkheea.2019.09.31.3.155
- Oh, K., Lee, K.-Y., & Lee, S.-H. (2011). The contents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the 2007 revised curriculum.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3), 91-119.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
- Parsons, R. (1999). Assess helping process and client outcomes in empowerment practice. In W. Shera & L. M. Wells (Eds.),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Canadian Scholars' Press Inc. (Reprinted from 사회복지에서의 역량강화실천, p. 401, by K. A. Lee et al., 2002, Paju: Yangseowon).
- Peterson, N. A., Lowe, J. B., Hughey, J., Reid, R. J., Zimmerman, M. A., & Speer, P. W. (2006). Measuring the intrapersonal componen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ociopolitical control scal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3-4), 287-297. doi:10.1007/s10464-006-9070-3
- Suh, M.-J., Lee, S.-H., & Sohn, S. H. (2015). Educational contents of 'understanding of self as an adolescent' unit to build adolescent empowerment(I): comparison of home economics textbooks of Korea and the U.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3), 99-119.
- Ungar, M., & Teram, E. (2000). Drifting toward mental health: high-risk adolescents and the process of empowerment. *Youth & Society*, 32(2), 228-252. doi:10.1177/0044118X00032002005
- Wallerstein, N. (1992). Powerlessness, empowerment, and health: implications for health promotion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6(3), 197-205.
- Yoo, T.-M. (2006). The nature of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4), 193-206.

- Yoo, T.-M., & Lee, H. S. (2009). Effects of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2), 203-215.
- Yoo, T.-M., & Lee, S.-H. (2010).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 [Practical problem-based Home Economics class]*. Seoul: Book Korea.
- Yu, J. H., & Lee, Y. S. (2013).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 based teaching-learning plans and evaluation of its effectiveness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focused on the unit 'youth's self Management' in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4), 79-98.
- Yu, N.-S., & Chae, J.-H. (2009). Home economics teachers' reflection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home economics education(H-PCK).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2), 83-107.
- Yu, P.-S. (2008).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analysis of effect on the improvement program of empowerment in Youth Studies*, 15(7), 1-21.
- Yu., P.-S. (2011). The Effect of empowerment on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1), 180-205.
- Zimmerman, M. A. (2000). *Empowerment theory*. In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pp. 43-63). Springer, Boston, MA.
- Zimmerman, M. A., & Zahniser, J. H. (1991). Refinements of sphere-specific measures of perceived control: development of a sociopolitical control scal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2), 189-204.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개발된 비판과학 관점의 의생활 교수·학습과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Y시에 위치한 K중학교의 2학년 학생(총 42명)으로 선정하여 총 4주 동안 12차시 수업을 적용하였 고, 개발된 교수·학습과정안 적용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양적 분석을 위해 5점 척도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측정된 후 SPSS/win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해서 학생 상담 자료, 수업일기, 실행 보고서 등을 수집하였고, 임파워먼트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의생활 교수·학습지도안 중 모듈A에서 모듈D를 각 2시간씩 진행하였고, 모듈E는 실행 프로젝트로 총 4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였다. 모듈별 실행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해서 홍보 포스터, 스티커 제작 후 배부, 의생활 퀴즈, 온라인상 에 의견 올리기, 홍보 동영상, 재활용품 만드는 방법 알리기, 지역사회 기부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실행하였다. 둘째, 개발된 교수·학습지도안의 양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가 사전 평균 3.12에서 사후 평균 3.36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t=2.06, p<0.05$ )였다. 임파워먼트의 질적 자료 분석 결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효능감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내적 차원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적 차원은 원활한 의사소통,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사회적 차원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수업이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양적·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타인과의 협력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문접수일자: 2021년 3월 17일, 논문심사일자: 2021년 3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4월 6일